

충북 단양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산수(山水)의 고장으로 꼽힌다. 남한강과 소백산이 만들어낸 단양팔경은 국내에서도 내로라하는 관광명소다. 그야말로 도시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단양을 찾는 이들에게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단양IC에서 단양역까지 이르는 도로는 남한강(충주호)을 끼고 있어 최고의 절경을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지만 왕복 2차선에 불과해 주말, 휴기철에는 병목현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교통안전 여건도 좋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들은 2016년 4월이면 완벽히 해소될 전망이다. 쌍용건설이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건설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은 이를 통해 도로이용자들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곳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있다. 이곳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찾아가 봤다.

소통, 화합의 자율안전관리 활동 전개

## 쌍용건설, 단양IC-대강 도로건설공사 현장 위험성평가 등 선진 안전관리기법 적극 활용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 시스템 안전관리의 선두주자 쌍용건설

현재 이곳에서는 심곡교의 교량 하부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사면보호 공사와 도로포장 공사 등 갖가지 공정이 수행되고 있다. 이는 곧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안전관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각에서의 추락·낙하·비래사고, 도로 포장 시 교통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곳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을 통해 본사의 안전방침과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무재해 현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곳에서는 2주 단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조성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은 물론, 장비가동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일상·특별점검 등을 통해 기계·기구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곳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방호벽 및 P.E 드럼을 빼곡히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DR GIRDER 제작장 등 취약개소에는 기존도로의 가드레일을 재활용해 공사진행 구간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운행차량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교량건설을 할 때 타 현장과 달리 점검

통로를 먼저 구축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 위험요인의 공유·제거에 만전

이곳 현장 안전관리의 백미는 바로 '9 to 5 Action Plan'이다. 이 활동은 박운규 소장 주재로 모든 공사 관계자들이 매일 오전 9시에 전일 안전 공정회의에서 계획했던 안전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당일 작업상황에 따른 추가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것이다. 또 오후 5시에는 일과 중의 안전활동에 대한 평가와 다음 날의 작업예정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날 회의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이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즉 공사 관계자 모두에 의한 교차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BAND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일 작업상황 및 특이사항은 물론 현장 점검시 확인된 위험요소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현장이 6.56km에 달할 정도로 넓은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 아니라 KOSHA18001과의 연계도 가능하고, 본사와의 네트워크도 기존보다 쉽게 구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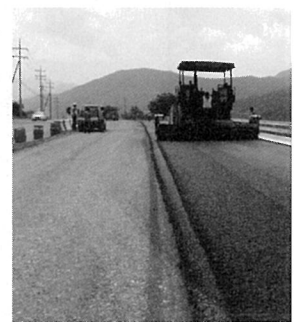
### 함께 만드는 안전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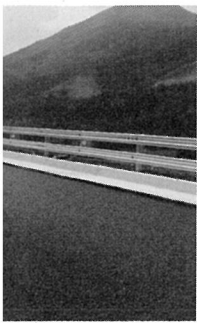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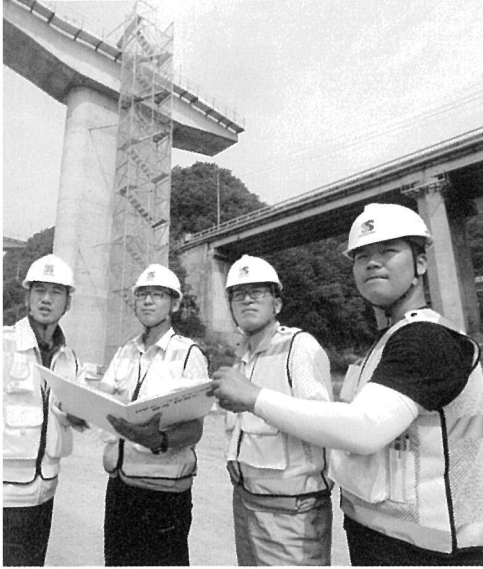
이곳 현장에서는 박운규 소장에 의한 안전경영도 전개되고 있다.

박 소장은 '함께 만드는 안전지대'를 현장운영방침으로 내세우고 무재해 준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이는 곧 안전은 몇몇 관계자들만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피를 나는 사람만이 가족은 아닙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 관계자 모두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박 소장의 이 같은 말에서 그가 얼마나 안전에 큰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박 소장은 신규 채용자 교육·훈련과 개인보호구 착용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빈틈없는 시스템과 현장 소장의 철두철미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안전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단양IC-대강 도로건설공사 현장. 지금과 같은 안전관리가 계속된다면 이곳의 목표인 '무재해 준공'은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 미니인터뷰



박은규 현장소장

### 안전의 시작은 관심

많은 현장들이 무재해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재해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현장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토목현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알고, 보고, 행하는 안전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위험한지 알아야 하고, 또 그런 위험을 볼 줄 아는 시야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행동에도 나서야 하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